

불자 세상보기



최용훈  
교수불자연합회 회장  
보문학원 이사장

한해가 저무는 이즈음이 되면 송구영신(送舊迎新)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운문선사는 '날마다 좋은날'이라고 했으나, 범부들에게 12월은 한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하는 특별한 때이다.

개인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절대 조용하지 못한 것이 지금이다. 밤거리를 환히 밝히는 네온사인 등 조명들이나 갈 곳을 모르고 휘청거리는 취객의 수가 늘어서만은 아니다. 어수선히 넘쳐나는 한쪽이 무너져 내려 앉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어느 대학교수의 신드롬으로 정치권이 여야할 것 없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자유무역협정안의 국회결로 거리는 연일 시위가 계속 되고 있다. 급기야 경찰서장이 시위현장에서 폭행을 당했다.

어디 이뿐인가. 서민의 살림살이를 눈물겨울 정도로 전세가 대란으로 집 없는 실용을 쫓아내고 있다.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도 매출 걱정에 밤잠을 못이룬다고 한다. 현상유지조차 되지 않아 사업장을 양도를 하려고 해도 인수자가 없으니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또, 한창 꿈에 부풀고 미래를 설계할 젊은이들이 대학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

고 있다. 이들은 취업을 위해 재수·삼수를 하고 결국에는 취업을 포기한 채 부모 다들 먹고 살기도 벅찬 데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선거터러를 저질러 온나라를 시골벽적으로 만들었다. 10·26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디도스 공격이 그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과거 김일성 주석 사망 시 우리 사회에서 벌어졌던 라면사재기와 같은 소동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학습효과에 의해 우리 국민들이 평상시와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장년층 이상이 기억하는 북한의 이미지는 생존을 위협하는 주적이다. 때문에 그들의 심리거지에 내포된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러한 근원적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성찰을 강조한 부처님 가르침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우리 불자들은 공존과 상생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평상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지혜는 고요로부터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대북문제의 대부분은 인도적 해결이 아닌 정치적 접근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많다. 삼라만상에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 담긴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일이 불교 아닌가. 불자들이 불교적 통찰력을 증장시켜야 한다. 불도를 이루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허물며 남북문제에 있어서다.

지금은 남북의 대중이 모두 불안해하는 시기이다. 어쩌면 지금 남북한 문제를 재정립하지 못 하면 통일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단지 분단의 고착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도 한계에 직면하게 될지 모를 우려도 피할 수 없다.

임진년 새해 새날이 밝아온다. 그 어느 때보다 뒤숭숭한 때, 불자라면 평상심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자. 시류에 휩쓸리지 말아야 참사람이다. 지금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평화통일, 분단의 고착화의 향방이 나뉠 수 있다. 남북이 한마음으로 평상심을 잃지 않는다면 저절로 지혜의 꽃이 피 평화통일로 이어지리라 믿는다.

평화통일의 디딤돌을 놓자

社說

한해를 마무리 하며

2011년의 해가 저물고 있다. 해마다 연말이면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가 되자 마무리하며 올 한해는 다사다난했다.

독자 제위의 개인 신변이나 가정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새해새날은 희망으로 맞겠다고 다짐한다. 돌아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해 다사다난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는가. 어느 한해 잘살아보자고 다짐 않던 때가 있었는가. 마치 육도윤회를 윤회하는 우리의 운명처럼 연말연시마다 되풀이되는 이 같은 다짐 또한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 이리라.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을 이뤄 윤회고를 벗어났다. 깨달음을 통해

해탈·열반한 것이다. 다가오는 새해가 목은 올해와 같은 그렇고 그런 해가 되지 않으려면 각고(刻苦)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환골탈태할 만큼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년은 올해와 같아진다.

조계종이 1년 동안 한국불교증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그리고 그 결산을 지난 21일 개최했다. 11번의 대토론회가 열리는 동안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 이제는 실천만 남았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땀속까지 사부치는 추위를 견디는 '자성'과 코끝을 찌르는 매화향기를 증생세간에 피어내는 '쇄신'의 길을 발원하자"는 말이 실천되는 한 해가 2012년이길 바란다. 그리하면 우리의 매일은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이 된다.

BBS 노사화합에 박수를

BBS불교방송 구성원들이 화해와 상생의 손을 잡았다.

BBS 불교방송(사장 이재철)과 불교방송노동조합(위원장 장용진)이 12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다. 이들이 발표한 '위극극복을 위한 불교방송 노사 공동선언'의 내용이 극적이거나 발표했던 그 모습이 드라마틱해서가 아니다. 그동안 노사가 겪어온 갈등이 각자의 뇌리에 사무치게 깊고도 깊었기 때문이다.

상생은 부처님 가르침임에도 BBS 불교방송은 그렇지 못했다. 이를 두고 많은 지적이 있었다. 소문도 무성했다. 그러나 이날 BBS불교방송 구성원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노사화합의 다짐을 넘어 갈등의 해결은 당사자의 노력에 달렸다는 대원칙과, 상생과 화

합이 부처님이 인류에 전한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노사대표는 간담회에서 "불교방송 외부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고자 했다"고 말했다. 불자들은 안다. 불교방송 구성원 각자가 갈등의 세월을 보내며 겪은 갈등에서 동체대비(同體大悲)의 가르침을 체득한 것임을.

BBS불교방송은 1990년 개국 이래 2000만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해 왔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만큼이나 BBS불교방송이 가야할 길은 멀다. 20여 년전 개국 당시를 생각하면 잠시도 주저할 수 없다.

BBS불교방송의 변화가 한국불교의 발전으로 이어져 세계일화의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 BBS불교방송 구성원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송년 칼럼



방남수  
시인·화남출판사 대표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순환법칙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이라크 철수 선언과 함께 신묘년이 저물고 있다. 세계 평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임진년의 새로운 세상을 기대해본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로 '아랍의 봄'이 될지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변질할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저무는 해와 새로 다가오는 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순환의 법칙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살아가는 최상의 방법을 아는 사람 또한 없을 것이다.

지난해 나라 안팎으로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건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존과 경쟁, 이기주의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가뭄으로 인해 일 년 농사를 망치고 깊게 패인 주름살에 담긴 고통, 일가족과 함께 생목숨을 잃어야 하는 가장, 어린 나이로 생활전선에 나선 소년소녀 가장들, 아파트에서 떨어져 목숨을 버리는 고교생들... 이는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닐 것이다.

그 예로 AP통신이 선정한 지구촌의 '2011년 올해의 10대뉴스' 중에서도 알 수 있다. 이른바 '아랍의 봄', 유럽연합 재

정위기, 미국의 경제회복 부진, 월가 점령 시위 등 생존과 관련한 문제이면서 돈과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은 몰락과 파멸의 종착역으로 귀결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한미 FTA 비준'으로 인해 수출산업업 자동차 산업 등에는 호재가 되겠지만 중소기업, 농업,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미래가 불투명한 것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구제역 살처분을 보면서 인간들의 몰육에 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교계에서 일어난 올해의 뉴스에는 이러한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일은 거의 없으나 동국대학교의 학과구조 개편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소위 '비전선포'라는 것을 발표, 개편학과 동문 및 재학생들 그리고 전국의 관련학과 학생과 교수들까지 확산되어 유감스러운 사건이 된 것이 씁쓸할 뿐이다. 이것 또한 학교경영의 이혜타산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올해 신묘년 조계종의 '자성과 쇄신운동'은 종교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웃을 사랑하고, 종교간 화합과 소통, 궁극은 증생제도와 청정승가 운동이라는 큰 펼침 막인 것이

다. 근세 청담, 성철 큰스님 등이 부처님 법대로 살자하며 주장한 '보양사 결사'와 고려(高麗) 보조지눌(普照知訥) 국사가 당시 승려들의 명리(名利)에 대한 타락상을 뼈아프게 개탄하고 있다. 수행남자의 본분인 정혜쌍수(定慧雙修)를 호소한 내용으로 선종승과에 합격하면 스물다섯에 만난 동지 열 사람과 더불어 '명리에서 은둔하여 불조(佛祖)의 정도의 정혜를 닦기로 정혜(定慧)를 결사' 할 때 지은 근수정혜결사문(勤修定慧結社文)이다.

제명이 가리키듯이 정과 혜를 함께 닦자는 취지로 엮어진 약 일만 자에 이르는 장편의 선언서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정혜결사문에서 지눌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시대는 비록 변천하나 심성(心性)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념으로 몽친 '정혜결사'의 도반들처럼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고, 공리공론을 떠나 진리의 가르침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850여 년 전의 이 결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크나큰 이정표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면서 불자들은 임진년 새해 결사선언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건 외에 생존경쟁·이기주의 원인 살펴야 이웃 사랑·종교간 화합 더불어 정혜 결사 정신으로 새해 맞길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www.hyunbul.com
www.hyunbul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8977 부산지사: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천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공정관리 및 그 실현 요건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책(秘案)이 있다.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줘야만 하는가?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들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화제의 신간 공합 사주명리학
「天地陰陽의 兩氣는 春夏秋冬에 降하여 그 時에 生을 주어 有用한 것은 吉이 되고, 無用한 것은 凶이 된다!」
진짜 공합 내 인생을 바꾼다.
하늘은 이미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各各 命을 지니고 있다. 天理에 의하여 生하였으니 天理에서 벗어날 수 없다. 人事 非 天理, 萬物은 모두 天地의 氣에 의하여 生生化育되는 것이다.
■ 眞性 임동균 ■ / 신국판 / 양장본 / 656쪽 / 정가 45,000원
육임이 보인다 新사주학 핵심비결 한국인의 발흥 자미두수 비법
공산 지음 / 4x6배판/양장본/70,000원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4x6배판/高山 엄청중 지음/양장본/4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그림 당사주 대전
김백만 편지/신국판/양장본/50,000원 4x6배판/이선암,전효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x6배판/양장본 1권 680쪽 2권 680쪽/2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명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스팡호)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팔자의 범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방향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子平眞詮 精解
사주격국은 어느 한 사주의 분수(分數)와 지향점을 뜻한다. 그러므로 격국을 모든 체 사주를 분석하는 것은 연진능력과 행선지를 모른 채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또 무엇보다도, 격국이라는 생구제법을 오해로 삼는 자평진언으로 배워온 그 명석한 원리를 제대로 터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자평진언을 전국서점, 인터넷서점에서 지금바로 만나세요.
■ 우형 서명덕 지음·신용 실용형 원저 / 신국판 / 744쪽 정가 40,000원